

接辞〈げ〉の 意味用法과 使用実態

李成圭* · 權善和** · 金庚洙***

Leesk@inha.ac.kr, ksona99@hanmail.net, kyungsookim1@hanmail.net

Contents

- I. 들어가기
- II. 〈げ〉유형의 형용동사
- III.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실태
- IV. 『源氏物語』《夏目漱石》《天声人語》의 〈げ〉유형의 형용동사
- V. 〈げ〉유형의 형용동사와 〈そうだ〉
- VI. 맺음말

Abstract

本稿では「涼しげ」「満足げ」「自慢げ」「確信ありげ」のように形容動詞を形成する接辞〈げ〉を考察対象として、その意味用法を検討し、〈げ〉型の形容動詞の歴史の変遷過程を探った。具体的には「怪しい：怪しげ」のように共通語基から分岐した形容詞と〈げ〉型の形容動詞の意味的關係と、〈げ〉型の形容動詞の使用実態、更に古典語において多用された〈げ〉型の形容動詞が現代語において数的に急激に減少した理由については様態の助動詞〈そう〉の出現に関連づけて考察した。考察内容をまとめ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

1. 同一の語基から分岐した形容詞と〈げ〉型の形容動詞において、形容詞が連体修飾語として使われる場合には、事実に基づいた話者の感情を直接的に表現している場合が殆んどで、〈げ〉型の形容動詞が連体修飾語として使われる場合には、主に、自分の感情であっても断定しにくい曖昧な感情を表現したり、第3者または他の対象の感情を推し量って表出するという点が確認される。

2. 一方、6種類の日本語辞典に提示された〈げ〉に関する記述に基づいて〈げ〉の意味用法を探った結果、〈げ〉型の形容動詞の〈げ〉は、主に〈様子〉と〈感じ〉に相当する意味を表しており、その他にも〈雰囲気〉〈気配〉等の意味も併せ持っているものとして現れた。一般的に話者の主観的な感情を表すものは形容詞の語幹に〈げ〉が接続する傾向を、話者の状態や姿を表現する場合には形容動詞に〈げ〉が接続する傾向を見せている。〈げ〉は少数ではあ

* 仁荷大学校 文科大学 国際言語文化学部 教授, 日本語学.

** 仁荷大学校 文科大学 国際言語文化学部 講師, 日本語学.

*** 仁荷大学校 文科大学 国際言語文化学部 講師, 日本語学.

るが, 人の情緒に關与する名詞にも接続して人の感情を表したり, <名詞(が)+ありげ>のように動詞から派生した<げ>型の形容動詞も, かなり制限的な形態ながら使用されているといった点も指摘される。

3. 『源氏物語』で比較的, 使用頻度の高かった<げ>型の形容動詞が, 現代語の資料である<<夏目漱石>>の作品と<<天声人語(2008年)>>において, その使用語例と出現頻度が減少している。その理由について本稿では, <げ>型の形容動詞に代わる新たな文法形式である様態の<そう>の登場が主な要因としてはたらいたものと解した。特に<<夏目漱石>>の作品では, この点を克明に示しており, そこにおいて使用された<げ>は, 様態の<そう>に置き換えることができ, 意味的にほぼ同価を表しているという点を本稿で指摘した。

4. 以上の検討結果に基づいて, <げ>型の形容動詞と<形容詞+そうだ>との相關関係を記すと次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時代別の言語資料での<げ>型の形容動詞の消長を探ってみると, 古典語から現代語に移行しながら口語体形式の文の使用が増え, それによって口語体の文章に馴染みやすい<形容詞+そうだ>が使われた文の使用頻度が高くなり, その結果, 文語体色の濃い<げ>型の形容動詞の表現が相対的に減少する契機としてはたらいたものと解される。

Key Words : 接辞, <げ>, 形容動詞, 意味用法, 使用実態

(affix, Ge, nominal adjective, semantical usage, syntactical usage)

I. 들어가기

언어사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어 형용동사는 형용사의 미발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생성된 것으로 「静かだ」「爽やかだ」「朗らかだ」와 같이 어기(語基)에 접사 <-か- · -やか- · -らか->를 매개로 하여 생성된 고유어 계열의 형용동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便利だ」「親切だ」「安全だ」와 같이 상대성 한어에 어미 <だ>가 접속되어 파생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형용동사를 어간의 어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유어 계열에서는 어기(語基)에 <か·やか·らか>가, 한어 계열에서는 <·的> 등의 접사가 조어성분으로 기능하는데, <げ>는 고유어 계열과 한어 계열에 접사로서 참여한다.

형용동사는 중고(中古)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형용동사의 어간을 만드는 접사의 발달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あやしげ」「かなしげ」「たのしげ」 등은 형용사 「あやしい」「かなしい」「たのしい」의 어간에 접사 <げ>가 첨가되어 생성된 형용동사이다.

따라서『あやしい：あやしげだ』『かなしい：かなしげだ』『したい：したしげだ』『たのしい：たのしげだ』와 같이 쌍을 이루는 일군(一群)의 형용사와 형용동사는 용언이라는 공통점과 동시에 동일 어기를 어 구성요소로 지니고 있는 점에서 의미적으로도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형용사라고 하는 상태성 용언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げ> 유형의 형용동사가 만들어진 것에 관해서는 기존의 형용사로서는 해당 사상(事象)을 언어화하는 데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복잡한 상태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언어형식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형용사 어간에 <げ>와 같은 의미적 부가를 실현하는 접사를 첨가함으로써 어형의 단순화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표현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해석된다.

본 절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형용사와 동일한 어기의 <げ> 유형 형용동사가 생성하게 된 동인(動因)과 이들의 의미적 관련성에 주목하여 검토를 행한다.

먼저 형용사와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의미관계를 보다 명확히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대별 언어자료를 이용하여 양자의 사용상황을 검토하고 그 변천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후술하지만, 시대별 언어자료를 통해 이들의 사용상황을 간략히 기술하면, <げ> 유형의 형용동사는 대부분 형용사의 어간에서 파생한 것으로, 헤이안(平安) 초기에 그 본격적인 조어(造語)가 행해지고, 『源氏物語』에 이르러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224개의 <げ> 유형의 형용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夏目漱石》의 소설 12개 작품¹⁾(1905-1917)에서는 31개의 <げ> 유형의 형용동사가 쓰이고 있고, 《天声人語》(2008)²⁾에서는 15개의 <げ>의 유형 형용동사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고에 비해 수적으로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源氏物語』에서 사용빈도가 높았던 <げ> 유형의 형용동사가 《夏目漱石》와

1) 본 논문에서는 [靑空文庫]에서 공개하고 있는 夏目漱石의 『吾輩は猫である』(1905) 『草枕』(1906) 『坊っちゃん』(1906) 『虞美人草』(1907) 『三四郎』(1908) 『それから』(1909) 『門』(1910) 『彼岸過迄』(1912) 『行人』(1912-1913) 『こころ』(1914) 『道草』(1915) 『明暗』(1916)을 대상으로 하여 <げ>의 용례를 추출했다.

2) 본 논문에서는 朝日新聞의 칼럼 《天声人語(2008年)》을 대상으로 <げ> 유형의 형용동사를 조사했다.

《天声人語》에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된 것에 대해서는, 『源氏物語』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 중에서 상당수가 사용상(실효성)의 축소에 의해 점차 소멸했거나 사어화(死語化)의 길을 걸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는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의미·용법을 대신할 새로운 부사 어류의 발달 혹은 새로운 조동사의 등장 등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이상의 추론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는 양태를 나타내는 <そう(だ)>의 발생을 들 수 있는데, <げ> 유형의 형용동사와 양태의 <そう>는 의미용법과 활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 유사성이 인정된다.

본 절에서 제기한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 절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용사와,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의미적인 관련성에 관해 살펴본다. 그리고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시대별 어휘목록을 조사·작성하여 그 사용상황의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そう>와의 의미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II. <げ> 유형의 형용동사

2.1 <げ>의 전접어(前接語)와 의미용법

<げ>는 형용사와 형용동사의 어간, 동사의 연용형, 그리고 명사에 접속되어 새로운 형태의 형용동사를 만드는 접사인데, <げ>에 관한 논고는 관견(管見)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의의 시발점으로 사전류에서의 <げ>의 의미용법과 접속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新明解国語辞典』(1972) [주로 형용사에 접속하여 그와 같은 모양.(主として形容詞について)そのような様子。)

②『例解新国語辞典』(1984) 형용사나 동사의 연용형 등에 접속시켜 형용동사의 어간이나 명사를 만든다. 「정말 그와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形容詞や動詞の連用形などにつけて、形容動詞の語幹や名詞をつくる。「いかにもそのようだ」という意味を表す。)

③『広辞苑 第六版』(2008) 체언, 형용사의 어간, 동사의 연용형 등에 접속하여 외부에서 보고 추측되는 낱새·모양·느낌·경향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의 모습. …과 같음. 정말 …의 느낌. (体言、形容詞の語幹、動詞の連用形などに付いて、外から見て推測されるけはい・様子・感じ・傾向などの意を表す。…の様子。…そう。いかにも…の感じ。)

④『明鏡国語辞典 第二版』(2010) 동사의 연용형, 형용사의 어간 등에 접속하여 형용동사의 어간을 만든다. 정말 …같음, …의 모습, 의 뜻을 나타낸다. (動詞の連用形、形容詞の語幹などに付いて形容動詞の語幹を作る。いかにも…そう、…の様子、の意を表す。)

<げ>의 전접어(前接語)에 관해서는 ①의 『新明解国語辞典』(1972)에서는 주로 형용사에 접속하는 것으로, ②의 『例解新国語辞典』(1984)에서는 형용사나 동사의 연용형 등에 접속하는 것으로, ③의 『広辞苑 第六版』(2008)에서는 체언, 형용사의 어간, 동사의 연용형 등에 접속하는 것으로, ④의 『明鏡国語辞典 第二版』(2010)에서는 동사의 연용형, 형용사의 어간 등에 접속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사전에 따라 이동(異同)을 보이지만, 이를 종합하면 <げ>는 체언, 형용사와 형용동사의 어간 그리고 동사의 연용형과 같이 명사성 어기에 접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의미용법에서는 <정말 …같음, …의 모양>에 상당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대상의 <모양(様子)><느낌(感じ)><낱새(気配)>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럼 이상의 사전 기술에 기초하여, <げ>의 전접어(前接語)와 의미용법에 관해 검토하자. 먼저 형용사의 어간에 <げ>가 접속된 예부터 살펴보자.

- (1) 月が変わると、校内は涼しげな装いをした女生徒たちであふれた。(『国語用例』)
- (2) 倒れた馬は苦しげにあえいだ後動がなくなった。(『国語用例』)
- (3) そのつり橋は、まことに危なげに見えるので、渡るのをためらった。(『国語用例』)
- (4) 一人で留守番するのはさびしいから、早く帰ると、電話の向こうで妹の心細げな声をした。(『国語用例』)
- (5) 日曜日の朝、どこからかピアノの音が心地よげに聞こえてきた。(『国語用例』)

(1)의 「涼しげ」, (2)의 「苦しげ」, (3)의 「危なげ」, (4)의 「心細げ」, (5)의 「心地よげ」는 모두 형용사 어간을 어기로 하는 형용동사인데, 「苦しい」「心細い」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관계하는 형용사이고, 「涼しい」「危い」「心地よい」는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속성을 겸비하고 있는 형용사라는 점에서 일단 통상 주관적인 감정에 관여하는 일군(一群)의 형용사의 어간이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어기는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의미에 있어서는 (1)의 「涼しげな装い」의 「涼しげ」, (2)의 「苦しげにあえいだ」의 「苦しげ」, (3) 「危なげに見える」의 「危なげ」의 <げ>는 대략 <様子>에 상당하는 의미를, 그리고 (4)의 「心細げな声」의 「心細げ」와 (5)의 「心地よげに聞こえてきた」의 「心地よげ」의 <げ>는 <感じ>에 해당하는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げ>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형용동사의 어간에도 접속한다.

(6) 終了後、橋下知事は記者団に「すごく良かった」と満足げに語った。

(「<http://www.asyura.com/08/senkyo48/msg/753.html>」)

(7) おじいさんは、得意げに話す孫に向かって、おおぎように驚いてみせた。(「国語用例」)

(6)의 「満足げ」, (7)의 「得意げ」는 한어 계열의 형용동사인 「満足だ」「得意だ」의 어간에 <げ>가 접속하여 새로운 형용동사가 만들어진 것으로, 언어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げ> 유형의 형용동사는 고유어 계열보다 한어 계열의 형용동사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리고 (6)의 「満足」은 사람의 감정에 관여하는 어휘이고, (7)의 「得意」는 감정의 상태를 표출하는 어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감정에서 느껴지는 상태(모양)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인정된다. (6)의 「満足げに語った」의 「満足げ」와 (7)의 「得意げに話す孫」의 「得意げ」의 <げ>는 공히 <様子(상태나 모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げ>는 다음과 같이 일부 명사에도 접속된다.

- (8) 自分のちょうの収集を自慢げに友達に見せた。(『国語用例』)
 (9) マートン技師は自分の説明が少年たちにわかったかどうか心配げな顔である。
 (『火星探険』)

(8)의 「自慢げ」와 (9)의 「心配げ」는 각각 명사 「自慢」「心配」에 〈げ〉가 접속하여 형용동사화한 것이다. 「自慢」「心配」 등의 명사는 사람의 정서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적 특징을 구비한 명사에서 파생된 〈げ〉유형의 형용동사도,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8)의 「自慢げに友達に見せた」의 「自慢げ」와 (9)의 「心配げな顔」의 「心配げ」의 〈げ〉는 <様子(상태나 모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간주된다. 그런데 명사에 접속되는 〈げ〉는 모든 명사에 접속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서에 관여하는 명사라는 의미적 제한으로 인하여 그 예가 한정된다.

그리고 동사에 기원하는 〈げ〉유형의 형용동사도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ある」의 연용형 「あり」에 〈げ〉가 접속한 「ありげ³⁾」가 있는데, 주로 <명사(が)+ありげ>의 형태로 쓰인다.

- (10) 「あしたの遠足は、絶対雨でお流れだね。」と、友達は確信ありげに言った。
 (『国語用例』)
 (11) 女は、ときどき悲しそうな表情を見せるが、何か由ありげである。(『国語用例』)

(10)의 「確信ありげ」는 한어 「確信」에 〈ありげ〉가, (11)의 「由ありげ」는 고유어 <由>에 〈ありげ〉가 접속한 것인데 <ありげ>에 선행하는 명사는 한어가 다수를 이루지만 고유어도 산견된다⁴⁾.

3) 「ありげ」는 다음의 「~がありげだ」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1) 私はサーロイン220g(写真)をレアで注文、見た目は少々ボリュームがありげだが、脂が割と軽めのため、肉汁と程よく混じりさっぱりといただける。(『Yahoo!ブログ』)
 (2) あと10日で8歳になる鍔五郎が、袴と紋付羽織を召使に着せてもらいながら、不平がありげな口調で、父・平藏(へいそう)42歳)に問いかけた。(『Yahoo!ブログ』)
 4) 명사에 「ありげ」가 접속된 예를 추가로 들면 다음과 같다.
 (3) わたしが近づくと、級友たちは、意味ありげに目で合図を交わし、黙ってしまった。(『国語用例』)

그리고 <명사(が)+ありげ>의 <げ>는 <様子(상태, 모양)>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의 검토 결과, <げ>유형의 형용동사는 형용어나 형용동사의 어간 그리고 제한적인 형태로 명사나 동사의 연용형에 접속되어 <様子(상태, 모양)> 혹은 <感じ>에 상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된다.

2.2 동일 어근의 형용사와 <げ>유형의 형용동사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어기를 살펴보면, 형용사의 어간에 접속되어 파생된 것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미 동일 어근의 형용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 (12a) あやしい空模様だからと、外出をとりやめたのが正解で、雷まで鳴り出した。(『国語用例』)
- (12b) 怪しげな気配がするので、懐中電灯で照らすと、すうっと黒い影が走った。(『国語用例』)
- (13a) いくら親しい友達だからと言って、夜の十一時過ぎに電話をかけるのは失礼だ。(『国語用例』)
- (13b) ずいぶん親しげにおしゃべりしていたけれど、お友達?(『国語用例』)
- (14a) 忘れていたはずの悲しい出来事が記憶の底からよみがえってきた。(『国語用例』)
- (14b) 故郷を出る時の悲しげな母の顔が今も目に焼きついている。(『国語用例』)
- (15a) 休暇もあっというまに終わり、楽しい海辺での生活もつかのまの出来事のように思える。(『国語用例』)
- (15b) 頭上では、つばめたちが楽しげにおしゃべりしながら飛び交っている。(『国

- (4) 声をかけたのに返事もしない姉は、何か様子ありげだ。(『国語用例』)
- (5) 職場にちょっとわけありげな死亡通知が回ってきた。([Yahoo!ブログ])
- (6) そのマヌス所長は、なにやら曰くありげな事を秘密裏に行ってるらしい。([Yahoo!ブログ])
- (3)의 「意味ありげ」는 한어 명사 「意味」에, (4)의 「様子ありげ」는 한어 명사 「様子」에 각각 <げ>가 접속된 것이고, (5)의 「わけありげ」는 고유어 명사 「わけ」에, (6)의 「曰くありげ」는 고유어 명사 「曰く」에 각각 <げ>가 접속된 것이다.

語用例,)

(12a)(13a)(14a)(15a)는 형용사가 연체수식어로 사용된 문이고, (12b)(13b)(14b)(15b)는 형용사의 어근에 접사〈げ〉가 후접하여 만들어진 형용동사가 연체수식어로 사용된 문이다. (12a)에서는 「あやしい」가 「空模様」를 수식 한정하여, 눈에 보이는 사실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고, (13a)에서는 「親しい」가 「友達」를 수식하여, 친구에 대한 느낌을 표출하고 있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4a)의 「悲しい」는 「出来事」을 수식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悲しい 出来事」는 과거 생활에 있어서의 「出来事」를 의미하며, 사실에 근거한 <슬픔>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15a)의 「楽しい」는 「海辺での生活」를 수식하고 있는데, 「楽しい 海辺での生活」는 과거 생활에 있어서의 <기쁨>을 의미하며, 사실에 근거한 <기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あやしい」「親しい」「悲しい」「楽しい」가 사용된 문에서는 해당 감정을 표출하게 된 명확한 사실과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げ〉가 사용된 (12b)의 「怪しげな気配」에서는 화자 자신의 기분이기 는 하지만 「あやしい」라는 기분이 어디서, 어떻게,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딱히 이렇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b)의 「親しげにおしゃべりしていた」에서는 타인들의 대화 장면을 보면서 그 모습이 화자의 눈에 「親しい」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14b)의 「悲しげな母の顔」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이별이라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은 「悲しい」이겠지만, 이는 화자 본인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의 형태로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15b)의 「楽しげにおしゃべりしながら」에서는 (13b)와 마찬가지로, 제비가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화자가 제비들이 「楽しい」할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12b)(13b)(14b)(15b)는 (12b)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자 자신이 아닌 제3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혹은 화자가 다른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른 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의 추측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2b)에서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예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렇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감정 상

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동일 어기에서 분기한 형용사와 <げ>유형의 형용동사에서, 형용사가 연체수식어로 쓰일 경우에는, 사실에 기초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연체수식어로 쓰일 경우에는, 화자의 직접적인 감정표현에 사용된 경우는 드물고 자신의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제3자의 감정이나 대상에서 촉발한 감정을 추측하여 묘사하는 데에 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음 절에서는 시대별 언어자료를 대상으로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시대별 사용상황의 변천에 대해 기술한다.

Ⅲ.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실태

전절에서는 <げ>의 의미용법을 검토한 결과, <げ>는 <様子(상태, 모양)>이나 <感じ(느낌)>에 상응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로서, 전접어의 감정이나 느낌이 명시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만일 접사 <げ>에 이와 같은 의미용법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げ>는 생산적인 문법형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실태에 관해서는 漆谷(1988)의 <『形容動詞』語幹末構成要素의 종별과 그 비율>을 원용했다. 漆谷(1988)은 일본 헤이안(平安)시대의 문학 작품 16개를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사용된 형용동사를 조사하여 이를 도표화했다. 아래의 <표1>은, <『形容動詞』語幹末構成要素의 종별과 그 비율> 중에서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1》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어휘(異なり語) 수

平安시대의 문학작품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어휘 수
『古今和歌集(こきんわかしゅう)』(905)	1
『竹取物語(たけとりものがたり)』(910년 이전)	6
『土佐日記(とさにっき)』(935년경)	3
『大和物語(やまとものがたり)』(951년경)	11
『伊勢物語(いせものがたり)』(956년 이후)	2
『平中物語(へいちゅうものがたり)』(965년경)	2
『宇津保物語(うつぼものがたり)』(984년 이전)	69
『落窪物語(おちくぼものがたり)』(989년경)	40
『枕草子(まくらのそうし)』(996년)	63
『和泉式部日記(いずみしきぶにっき)』(1004년 이후)	18
『源氏物語(げんじものがたり)』(1008년경)	224
『更級日記(さらしなにっき)』(1059년 이후)	17
『狭衣物語(さごろもものがたり)』(1080년)	104
『栄花物語(えいがものがたり)』(平安 후기)	10
『提中納言物語(つつまちゅうなごんものがたり)』(平安 후기)	29
『古本説話集(こほんせつわしゅう)』(平安 후기~鎌倉 초기)	23

《표1》은 『古今和歌集』에서 『古本説話集』까지의 약 300년 동안의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실태를 나타낸 것으로 이 시기는 일본문학사에서는 헤이안(平安)시대(794년-1192년)에 해당한다. 《표1》에 따르면 <げ>유형의 형용동사는 헤이안(平安) 초기에는 드물게 나타나다가 헤이안(平安) 중기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げ>유형의 형용동사는 『宇津保物語』에서 69개, 『枕草子』에서 68개, 『源氏物語』에서 224개, 『狭衣物語』에서 104개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げ>유형의 형용동사는 『狭衣物語』작품 이후 그 사용빈도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현대일본어에 있어서의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夏目漱石》의 소설 12개(1905-1917)와 朝日新聞의 칼럼 《天声人語(2008년)》를 대상으로 하여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夏目漱石》에서는 31종류의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天声人語》에서는 15종류의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래의 <표2>는<夏目漱石>와 <天声人語>에서 사용된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夏目漱石>와 <天声人語> 및 『源氏物語』에서 쓰인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夏目漱石>와 <天声人語>에서 사용된 <げ>유형의 형용동사에 대해서는 모든 어례(語例)를 제시했고, 『源氏物語』에서 쓰인 <げ>유형의 형용동사에 대해서는 <夏目漱石>와 <天声人語>에서 쓰인 <げ>유형의 형용동사에 해당하는 어례 전부와 10회 이상 사용된 어례를 제시했다.

<표2> 『源氏物語』<夏目漱石><天声人語>의 <げ>유형의 형용동사⁵⁾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어례(語例)	源氏物語 (1008)	夏目漱石 (1905-17)	天声人語 (2008年)
あふなげ (危な気)	6	2	1
あやしげ (怪し気)	1	3	3
いそがしげ (忙し気)	1	1	
うしろめたげ (後ろめた気)	14		
うつくしげ (美し気)	64		
うらやましげ(羨し気)	17	1	
うれしげ (嬉し気)	1	1	
おかしげ (可笑し気)	113		
おきなげ (幼氣)(いたいけ)	12	1	1
おしげ (惜し気)	5	9	
おそろしげ (恐ろし気)			2
おもしろげ (面白げ)		1	
おもたげ (重た気)		1	
かるげ (軽げ)		1	
きづかわしげ (氣遣わし気)		2	
きよげ (清げ)	65		
きまりわるげ (決まり悪気)		1	
くるしげ (苦し気)	45		
こころくるしげ(心苦しげ)	21		
こころはずかしげ(心恥ずかしげ)	11		
こころぼそげ (心細げ)	25		
こころよげ (快げ)	1	2	

5) 빈 칸은 사용된 예가 없음을 의미한다.

さびしげ (寂しげ)	5		1
したしげ (親しげ)		3	
じゅつなげ (術なげ)		2	
たのしげ (樂しげ)		1	1
たのもしげ (頼もしげ)	14		
たよринаげ (頼りなげ)			2
つつましげ (慎ましげ)	17		
なげ (無げ)	26		
なつかしげ (懐かしげ)	9	3	
なやましい (悩ましげ)	29		
にくげ (悪げ)	16	1	
はかなげ (敢無げ)	17		3
はずかしげ (恥ずかしげ)	65	1	1
ほこらしげ (誇らしげ)	1		2
むずかしげ (難しげ)	12	1	
ものうげ (物憂げ)	4	4	
ものきよげ (物清げ)	17		
やさしげ (優しげ)			1
ゆかしげ (床しげ)	9	1	
よげ(良げ)	29		
よわげ (弱げ)	14		
わびしげ (侘しげ)	1		1
ふまんげ (不満げ)			1
おぼろげ (朧氣)		14	1
なめげ	10		
くったくげ (屈託氣)		2	
けなげ (健氣)		2	1
ゆげ (湯氣)		1	
おとなげ (大人氣) ない		2	
なにげ(ない)		5	
こともなげ (事もなげ)		6	
ありげ	5	11	
知らぬげ		2	
らうたげ	29		
ねたげ	12		

『源氏物語』는 <げ> 유형의 형용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 문학작품으로 총

224개의 형용동사가 추출된다. 224개 중에서 10회 이상 쓰인 24개만을 대상으로 하여 어기를 분석하면, 형용사의 어기에 접속되어 형용동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22개이고, 나머지 2개는 「なめげ」「ねたげ」와 같이 <げ>가 전접어와 일체화되어 그 전체가 하나의 형용동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예가 있다. 그리고 형용사의 어기에서 파생된 22개의 형용동사를 대상으로 원래의 형용사의 활용 형식을 살펴보면, 「ク활용」에 속하는 것이 11개이고, 「シク활용」에 속하는 것이 11개이다. 그리고 이들 형용동사를 의미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정태개념에 관계하는 것이 10개, 상태개념에 관여하는 것이 12개로 조사되었다. 형용사 어기에서 파생된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경우, 『源氏物語』에서는 원래의 형용사의 활용 형식이 「ク활용」이든 「シク활용」이든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정태개념에 관계하는 것이나 상태개념에 관여하는 것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夏目漱石》의 소설 12편(1905-1917)에서는 총 31개의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22개는 형용사의 어간에서 파생된 것이다. 「おぼろげ」는 형용동사 「おぼろ」에 다시 접사 <げ>가 접속되어 새로운 형용동사가 만들어진 것이고 「けなげ」는 어형성의 구성요소로서 <げ>가 참여한 것으로 그 전체가 일어화(一語化)하여 하나의 형용동사로 인정된다. 그리고 「おとなげ」「ゆげ」「くったげ」 등은 상기와는 달리 명사에 <げ>가 접속하여 새로이 <げ>유형의 형용동사로 전성된 것이며, 「~ありげ」는 동사 「ある」의 연용형에 <げ>가 접속하여 성립된 형용동사이다. 그밖에도 「なにげ(ない)」「こともなげ」「知らぬげ」 등과 같이 사용된 어례도 발견된다. 형용사 어기에서 파생된 22개의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원래의 형용사의 활용형식을 살펴보면, 「ク활용」에 속하는 것이 10개이고, 「シク활용」에 속하는 것이 12개이다. 그리고 이들 형용동사를 의미적 관점에 분류하면, 정태개념에 관계하는 것이 15개이고 상태개념에 관여하는 것이 6개이지만, 상태개념어 중에는 일부 정태개념을 함의하고 있는 것도 있다.

《天声人語(2008年)》에서는 총 15개의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형용사 어기에서 파생된 것은 12개, 형용동사에서 파생한 것이 2개이고, 「けなげ」와 같이 <げ>가 이미 한 단어의 구성요소로 융합된 형용동사

도 있다. 형용사에서 파생된 12개의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본래의 형용사의 활용형식을 살펴보면, 「ク 활용」에 속하는 형용사가 4개이고 「シク 활용」에 속하는 형용사가 8개이다. 그리고 12개의 〈げ〉유형의 형용동사에 의미적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면, 9개의 정태개념어와 3개의 상태개념어로 분류된다.

다음은 《표2》에 제시된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어휘별로 살펴보면, 《夏目漱石》《天声人語》『源氏物語』에서 공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あぶなげ」「あやしげ」「おきなげ」「はずかしげ」의 4개의 어휘에 불과하고, 「おそろしげ」「おもしろげ」「おもたげ」「かるげ」「きづかわしげ」「したしげ」「術なげ」「たのしげ」「たよりなげ」「やさしげ」「悪気(わるげ)」「不満げ」「臍氣」「くったくげ」「健氣」「湯氣」「大人げ」 등은 《夏目漱石》《天声人語》에서는 쓰이고 있으나, 『源氏物語』에서는 하나도 출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うつくしげ」「おかしげ」「きよげ」「くるしげ」「こころくるしげ」「こころぼそげ」「なげ」「なやましげ」「よげ」「らうたげ」 등은 『源氏物語』에서는 20회 이상의 사용빈도를 보이는 반면, 《夏目漱石》《天声人語》에서는 그 용례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源氏物語』에서 다용되었던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夏目漱石》《天声人語》에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현상에 대해서는, 『源氏物語』에서 사용되었던 어휘나 표현이 어떤 원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멸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대신할 새로운 어휘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표현 방식의 대두를 하나의 동인(動因)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대어 사전에서는 〈げ〉에 관한 기술에서 공통적으로 <정말 …같음(いかにも…そう)>라는 의미적 특징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면 현대어에서 시각 판단에 기초하여 양태나 예측을 나타내는 데 주로 쓰이는 <…そうだ>⁶⁾의 대두가 〈げ〉의 유형의 형용동사의 축소에 어떠한 형식이로든 관련을 맺고 있다고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源氏物語』《夏目漱石》《天声人語》의 〈げ〉유형 형용동

6) 동사·조동사 등의 連用形, 형용사·형용동사 등의 어간에 접속하여(어간이 1음절인 형용사에는 「さそうだ」, 그리고 조동사 「たい」「ない」에 접속할 때는 「たそうだ」「なそうだ」의 형태를 취한다) 양태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そうだ」는 문헌자료상으로는 室町 말기에 출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V. 『源氏物語』《夏目漱石》《天声人語》의 〈げ〉유형의 형용동사

4.1 『源氏物語』의 〈げ〉유형의 형용동사

『源氏物語』은 일본 문학의 단일 작품 중에서는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 『をかしげ』『はずかしげ』『きよげ』『うつくしげ』『くるしげ』 등은 40회 이상의 사용빈도가, 『こころくるしげ』『なやましげ』『こころぼそげ』『たのもしげ』『つつましげ』 등은 20회 이상의 사용빈도가 확인되는데, 『らうたげ』를 제외한 대부분의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현대어에서도 여전히 그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 (16) 白き紙に、捨て書いたまへるしもぞ、なかなかをかしげなる。(『06末摘花』)
 (16a) 白い紙に、さりげなくお書きになっているのは、かえって趣きがある。(『06末摘花』現代語訳)
 (16b) ただ白い紙へ無造作に書いてあるのが非常に美しい。(『06末摘花』与謝野晶子訳)
 (17) 後目に見おこせたまへるまみ、いと恥づかしげに、気高うつくしげなる御容貌なり。(『05若紫』)
 (17a) 流し目に御覧になっている目もとは、とても気後れがしそうで、気品高く美しそうなご容貌である。(『05若紫』現代語訳)
 (17b) こう言って横に源氏のほうを見た目つきは恥ずかしそうで、そして気高い美が顔に備わっていた。(『05若紫』与謝野晶子訳)
 (18) ここに、いとあやしう、物に襲はれたる人のなやましげなるを、ただ今、惟光朝臣の宿る所にまかりて、急ぎ参るべきよし言へ、と仰せよ。(『04夕顔』)
 (18a) ここに、まことに不思議に、魔性のものに魅入られた人が苦しそうなので、今すぐに、惟光朝臣の泊まっている家に行って、急いで参上するように言

え、と命じなさい。(『04夕顔』現代語訳)

(18b)ここに、急に何かに襲われた人があって、苦しんでいるから、すぐに惟光朝臣の泊まっている家に行って、早く来るように言えとだれかに命じてくれ。(『04夕顔』与謝野晶子訳)

(16)(17)(18)은『源氏物語』의 원전(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이고, (16a)(17a)(18a)는 그 <現代語訳>(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16b)(17b)(18b)는 <与謝野晶子訳>(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이다.

『源氏物語』에서 사용된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의미를 번역문에 나타난 대응어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문 전체의 내용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源氏物語』 원전과 번역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6)의 「をかしげなる」에 대해 <現代語訳>에서는 「趣きがある」로, <与謝野晶子訳>에서 「美しい」로 번역되어 있다. (17)의 「恥づかしげ」의 경우, <現代語訳>에서는 「氣後れがしそう」로, <与謝野晶子訳>에서는 「恥ずかしそう」로 번역되고 있고, (17)의 「うつくしげ」는 「氣高ううつくしげなる」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現代語訳>에서는 「氣品高く美しそうな」, <与謝野晶子訳>에서는 「氣高い美」로 번역되어 있다. (18)의 「なやましげ」는 현대어에도 동일 어간의 형용사가 존재하지만, 번역에 있어서는 유사한 의미의 형용사와 동사를 사용하여 <現代語訳>의 「苦しそうな」와 <与謝野晶子訳>의 「苦しんでいる」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16)(17)(18) 중에서 『源氏物語』의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어간이 번역에 반영된 것은 (17)의 「恥づかしげ」가 <与謝野晶子訳>에서 「恥ずかしそう」로, (17)의 「うつくしげ」가 <現代語訳>에서 「美しそうな」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16)(18)의 경우에는 현대어에서 별도의 어휘가 선택되고 있다.

한편 『源氏物語』에서 다용된 <げ> 유형의 형용동사 중에는 다음과 같이 현대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예도 존재한다.

(19) 「わづらひはべる人、なほ弱げにはべれば、とかく見たまへあつかひてなむ」
など、聞こえて、近く参り寄りて聞こゆ。(『04夕顔』)

- (19a) 「患っております者が、依然として弱そうでございましたので、いろいろと看病いたしておりますなど、ご挨拶申し上げて、近くに上って申し上げます。(『04夕顔』現代語訳)
- (19b) 「病人がまだひどく衰弱しているものでございますから、どうしてもそのほうの手が離せませんで、失礼いたしました」こんな挨拶をしたあとで、少し源氏の君の近くへ膝を進めて惟光朝臣は言った。(『04夕顔』与謝野晶子訳)
- (20) 容貌など、衰へにけり。年ごろいたうつひえたれど、なほものきよげによしあるさまして、かたじけなくとも、取り変へつべく見ゆ。(『15蓬生』)
- (20a) 容貌など、衰えてしまっていた。長年のうちにひどくやせ細っているが、やはりどことなく品のある感じで、恐れ多いことであるが、姫君と取り替えたいくらいに見える。(『15蓬生』現代語訳)
- (20b) 容貌は以前に比べてよほど衰えていた。しかしやつれながらもきれいで、女王の顔に代えたい気がする。(『15蓬生』与謝野晶子訳)

(19)의 「弱げ」와 (20)의 「ものきよげ」는 『源氏物語』에서는 <げ> 유형의 형용동사로 쓰이고 있지만, 현대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19)의 「弱げ」는 현대어에서 형용동사로 실현되지 않으나, <げ>가 접속하기 이전의 형용사 「弱い」는 여전히 현대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19)의 「弱げ」는 <現代語訳>에서는 「弱そう」로 번역되어 <げ>가 양태의 「~そう」로, <与謝野晶子訳>에서는 「衰弱し」로 표현되고 있다. (20)의 「ものきよげ」는 현대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げ> 유형의 형용동사이고, 여기 부분도 현대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미적으로 상응하는 별도의 어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20)의 「ものきよげ」에 대해서는 <現代語訳>에서는 「どことなく品のある感じ」로, <与謝野晶子訳>에서는 「きれいで」로 대응시키고 있다.

『源氏物語』에서 사용된 <げ> 유형의 형용동사가 현대어에서도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소수로서 「怪しげ」가 형용동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정도이며, 그 외의 <げ> 유형의 형용동사는 모두 형용사에서 파생된 형태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현대어에서 동형 어간의 형용사는 존재하나 <げ> 유형의 형용동사로 쓰이지 않는 것에는 「うつくしげ」「かたげ」「かるげ」「すげ」「すさまじげ」「ものきよげ」「よげ(良げ)」「よわげ」 등이 있고, 「なめげ」「ら

うたげ』『ねたげ』와 같이 현대어에서 형용동사는 물론 그 어근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源氏物語』에서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았던 「うしろめたげ」「かたげ」「くるしげ」「こころくるしげ」 등의 형용동사가 현대어에서 사용되지 않게 된 것에 관해서는, 이런 종류의 어휘가 어떤 이유에서 사어(死語)가 되어 해당 의미용법의 필요성이 소실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해 의미용법을 담당할 새로운 어휘나 표현이 대두하여 이를 대신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현상에 부합한다.

4.2 《夏目漱石》 작품에서의 〈げ〉유형의 형용동사

《夏目漱石》의 작품 12편(1905-1916)에서 사용된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살펴보면, 「おぼろげ」가 14회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ありげ」가 11회, 「おしげ」가 9회의 순으로 되어 있다. 3회 이상 사용된 〈げ〉유형의 형용동사에는 「あやすげ」「おしげ」「したしげ」「なつかしげ」「ものうげ」「おぼろしげ」「なにげ(ない)」「こともなげ」가 있다. 이 중에서 일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1) 行列の中には怪し気な絹帽(シルクハット)を阿弥陀に被って、耳の御蔭で目隠しの難を喰い止めているのもある。(「行人」)
- (22) さうなると、普通の酒家以上に、能く弁する上に、時としては比較的眞面目な問題を持ち出して、相手と議論を上下して楽し気に見える。(「それから」)
- (23) 彼は田口の叔母を親しげに御母さん御母さんと呼んだ。(「彼岸過迄」)

(21)(22)(23)의 〈げ〉유형의 형용동사는, 형용사 어간에 접사 〈げ〉가 접속되어 생성된 것이다. 〈げ〉의 의미를 살펴보면, (21)의 「怪し気な絹帽(シルクハット)」의 「怪しげ」, (22)의 「楽し気に見える」의 「楽しげ」, (23)의 「親しげに御母さん御母さんと呼んだ」의 「親しげ」의 〈げ〉는 각각 <様子(상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22)(23)의 〈げ〉는 양태의 <そう>로의 치환이 가능하다.

- (24) しかし三四郎はこの矛盾をただ隴気に感じたのみである。(「三四郎」)
- (25) 客も自分も興味ありげに笑い出した。(「行人」)

(26) あぶな気なしに見られる。(『草枕』)

(27) 尋常の場合では小袖の裾の先にさえ出る事を許されない、長い襦袢の派手な色が、惜気もなく津田の眼をはなやかに照した。(『明暗』)

(24)의 「臙氣」는, 형용동사 「おぼろ」에 <げ>가 접속되어 새로운 <げ> 유형의 형용동사가 생성된 것으로, 양자가 모두 형용동사인 셈이다. 양자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면, 「おぼろ」가 눈에 비춰진 모습을 표현하는 데 중점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おぼろげ」는 그 모습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おぼろげ」에서의 <げ>는 <氣配(낌새)>에 상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25)는 동사 「ある」의 연용형에 <げ>가 접속된 「ありげ」가 <명사+あり+げ>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げ>는 동사의 연용형에 접속하여 <げ> 유형의 형용동사를 만들기는 하지만 <동사+げ>에서 파생한 형용동사는 <ありげ>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ありげ>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명사(が)+ありげ>와 같은 복합 형태로 쓰인다. 《夏目漱石》의 작품에서는 <명사+ありげ>가 「意味ありげ」「興味ありげ」「興ありげ」「事ありげ」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의 <げ>는 <様子(상태,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의미적으로 양태의 <そう>에 상당한다고 해석된다. (26)의 「あぶな気」, (27)의 「惜気」는 형용사의 어간에 <げ>가 접속되어 있지만, 이들은 품사적으로 형용동사가 아닌 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의미적으로는 (26)의 「あぶなげ」의 <げ>는 <感じ(느낌)>을, (27)의 「おしげ」의 <げ>는 <氣配(낌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들 <げ> 유형의 어휘적 용법을 살펴보면, (26)의 「あぶな気なし」에는 「なし」가 접속되어 쓰이고 있고, (27)에서는 「惜気もなく」와 같이 격조사 「も」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명사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어간은 명사적 성분과 형용동사적 성분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로서도 또한 형용동사로서도 기능한다.

4.3 《天声人語(2008年)》의 <げ> 유형의 형용동사

《天声人語(2008年)》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源氏物語』나 《夏目漱石》의

작품에 비해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예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되지 않는다. 총 15개의 어휘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 「怪しげ」「はかなげ」가 각 3회, 「おそろしげ」「たよりなげ」「ほこらしげ」가 각 2회, 나머지는 각 1회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일부의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8) 危なげな一輪車を 8年乗りこなした後部座席の先輩が、ハンドルにも手を伸ばすのだろう。(「天声」08.03.04)
- (29) 最後はあの白髪で、優しげな背中、秋の夕景の一部になりきった。(「天声」08.10.10)
- (30) 泥のついた幼げな手は、なお体温をとどめているかのようだ。(「天声」08.05.15)
- (31) あやしげな「秘法」は論外だが、「緑茶が糖尿病を阻止」といった専門家の調査や研究結果が紙面をにぎわす。(「天声」08.10.27)
- (32) 恐ろしげな数字が独り歩きし、逃げ場のない人々は焦るか、思考停止に陥りかねない。(「天声」08.04.17)

(28)~(32)의 <げ>유형 형용동사는 모두 형용사의 어간에 <げ>가 접속되어 형성된 것이다. (28)의 「危なげな一輪車」의 「危なげ」, (29)의 「優しげな背中」의 「やさしげ」, (30)의 「幼げな手」의 「幼げ」, (31)의 「あやしげな秘法」의 「あやしげ」의 <げ>는 모두 <様子(상태,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32)의 「恐ろしげな数字」의 「恐ろしげ」의 <げ>는 <感じ(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 (33) 読み進むうち、不満げな子をよそに黙読になった。(「天声」08.04.05)
- (34) 疎開の記憶もおぼろげな隅田さんは、新米ガイドの歌に涙する客に打たれた。(「天声」08.08.16)
- (35) 畑の野菜は、弱った太陽から少しでも力をもらおうと、一心に冬日を浴びているようで健気だ。(「天声」08.12.21)

(33)의 「不満げ」, (34)의 「おぼろげ」는 각각 형용동사의 어간 「不満」「おぼろ」에 <げ>가 접속되어 새로운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생성된 것이고, (35)의 「健気」는 <げ>가 어 형성 과정에서 형용동사의 구성요소로 참여하여 그 전체가 일어화

된 예이다. (33)의 『不満げ』는 <様子(상태, 모양)>을, (34)의 『おぼろげ』가 <感じ(느낌)>을, (35)의 『健氣』가 <様子(상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天声人語》에 사용된 <げ>유형의 형용동사는 모두 형용사와 형용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주로 <모양(様子)>과 <느낌(感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양태의 <そう>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げ>유형 형용동사와 『~そうだ』의 의미적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V. <げ>유형의 형용동사와 <そうだ>

《표1》의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어휘(異なり語) 수]를 통한 검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げ>유형의 형용동사는 헤이안(平安) 중기의 『宇津保物語』『枕草子』『源氏物語』『狭衣物語』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어류였다. 그런데 《夏目漱石》(1905-1916)의 작품이나 《天声人語(2008年)》에서의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현대일본어에서는 그 어류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현대어에서 격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게 된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대신할 새로운 어휘가 출현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생성에 관련한 접미사 <げ>를 대신할 새로운 문법형식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의, <げ>유형의 형용동사를 대신할 새로운 어휘의 출현 가능성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げ>유형의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어휘를 개별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 세계에서 <げ>라는 문법형식에 의해 생산성이 담보된 어휘를 굳이 개별적인 어휘화라는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돌리는 것은 언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 어휘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다음으로 두

번개의 가능성은 〈げ〉를 대신할 새로운 문법형식의 등장인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源氏物語』에서 사용된 〈げ〉유형의 형용동사 대부분이 현대어 번역에서 〈げ〉를 「~そう」에 대응시키고 있다. 또한 《夏目漱石》에서 사용된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げ〉도 〈様子(상태, 모양)〉과 〈気配(낌새)〉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양태의 〈そう〉에 상당한다. 《天声人語》에서 사용된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げ〉도 〈様子(상태, 모양)〉와 〈感じ(느낌)〉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 이것 역시 양태의 〈そう〉에 대응한다. 즉, 『源氏物語』《夏目漱石》《天声人語》의 세 영역에서 사용된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げ〉를 현대일본어로 치환할 경우 가장 근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そう〉라고 할 수 있다.

한편, 〈そうだ〉의 의미에 대해, 『明鏡(2010)』에서는 〈정말 ~인 것 같다, ~의 모양의 뜻을 나타낸다(いかにも~そう、~の様子、の意を表す)〉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げ〉의 의미에 대해서도 『明鏡(2010)』에서는 〈정말 ~인 것 같다, ~의 모양의 뜻을 나타낸다(いかにも~そう、~の様子、の意を表す)〉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明鏡(2010)』에서는 〈そうだ〉의 의미와 〈げ〉의 의미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夏目漱石》의 작품에서는 「いそがしげ」「羨まし気」「嬉しげ」「面白気」「重た気」「軽気」「心地よげ」「樂し気」「むずかし気」「悪げ」와 같이 형용사를 여기로 하는 〈げ〉유형의 형용동사와 「いそがしそうだ」「羨ましそうだ」「嬉しそうだ」「面白そうだ」「重たそうだ」「軽そうだ」「心地よさそうだ」「樂しそうだ」「むずかしそうだ」「悪そうだ」와 같이 형용사에 양태의 〈そう〉가 접속한 형태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 (36a) 燕は年々帰って来て、泥を啣んだ嘴を、いそがしげに働かしているか知らん。(「草枕」)
- (36b) 主人はまた冒頭からさも忙がしそうに声も身体も取り扱っている癖に、どこか腹の中に余裕の貯蔵庫でもあるように、けっして周章で探偵の結果を聞きたがらなかった。(「行人」)
- (37a) しかし寒月君の女連れを羨まし気に尋ねた事だけは事実である。(「吾輩は

猫である」)

- (37b) 「ふん、そしてその女というのは何者かね」と主人は羨ましそうに問いかける。(「吾輩は猫である」)
- (38a) 具象の籠の中に飼われて、個体の粟を啄んでは嬉しげに羽搏するものは女である。(「虞美人草」)
- (38b) 母がああ好くかんかんが結えましたねと賞めると、千代子は嬉しそうに笑いながら、子供の後姿を眺めて、今度は御父さんの所へ行って見せていらっしやいと指図した。(「行人」)
- (39a) 今まで面白氣に行司気取りで見物していた迷亭も鼻子の一言に好奇心を挑撥されたものと見えて、煙管を置いて前へ乗り出す。(「吾輩は猫である」)
- (39b) そうしてその後へ自分が旅行した満洲地方の景況をさも面白そうに一口ぐらいずつ吹聴していた。(「行人」)
- (40a) 膏ぎって、重た氣に濁っている。(「吾輩は猫である」)
- (40b) 彼の頭のなかには、重たそうに毛繻子の洋傘をさして、異様の瞳を彼の上に据えたその老人の面影がありありと浮かんだ。(「道草」)
- (41a) 「ほほほ御部屋は掃除がしてあります。往って御覧なさい。いずれ後ほど」と云うや否や、ひらりと、腰をひねって、廊下を軽氣に馳けて行った。(「草枕」)
- (41b) 一番小さいのにさえきめておけば間違はあるまいという謙遜から、彼は腰の高い脇懸も裝飾もつかない最も軽そうなのを択って、わざと位置の悪い所へ席を占めた。(「行人」)
- (42a) 何とあちらのものは豪興をやるではないか」と話し終ってカラカラと心地よげに笑う。(「坊っちゃん」)
- (42b) 御米はさも心地好きそうに眠っていた。(「門」)
- (43a) さうなると、普通の酒家以上に、能く弁する上に、時としては比較的眞面目な問題を持ち出して、相手と議論を上下して楽し氣に見える。(「それから」)
- (43b) 彼らは穏和かであった。彼らは楽しそうに見えた。(「明暗」)
- (44a) 「まあ助かった」とむずかし氣に云った。(「門」)
- (44b) 「なぜって聞かれると、僕にも明瞭な答はでき悪いんですが、ちょっと考えて見てもむずかしそうですね」(「行人」)

(36a)의 「いそがしげに」, (37a)의 「羨ましげに」, (38a)의 「嬉しげに」, (39a)의 「面白げに」, (40a)의 「重たげに」, (41a)의 「軽げに」, (42a)의 「心地よげに」, (43a)의 「楽しげに」, (44a)의 「むずかしげに」는 형용사에서 파생한 <げ>유형 형용동사가 사용된 예이다. 반면 (36b)의 「忙がしそうに」, (37b)의 「羨ましそうに」, (38b)의 「嬉しそうに」, (39b)의 「面白そうに」, (40b)의 「重たそうに」, (41b)의 「軽そうな」, (42b)의 「心地好さそうに」, (43b)의 「楽しそうに」, (44b)의 「むずかしそう」는 형용사에 양태의 <そう>가 접속되어 사용된 예이다. 이상의 각 (a)의 <げに>와 각 (b)의 <そうに>는 그 의미용법에서 차이가 인정되지 않으며, 연용형에서 (a)의 <げに>를 (b)의 <そうに>로, 연체형에서 (a)의 <げな>를 <そうな>로 치환하더라도 양자 간의 의미용법상의 간극은 없고, 문 성립에 있어서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형용사의 어간에 <げ>가 접속된 것과, 양태의 <そう>가 접속된 것을 비교하면, 전자는 문어체적인 느낌이, 후자는 구어체적인 경향이 강하게 보인다고 하는 문체상의 차이는 인정된다.

《夏目漱石》의 작품에서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문과 <형용사+そうだ>의 문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사한 의미 내용을 나타내지만, 표현에 있어서 격식을 차리는 느낌을 부여하고자 할 때는 문장체적인 성향의 <げ>유형의 형용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스투럼 없는 가벼운 느낌을 부가하고자 할 때는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용사+そうだ>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VI.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涼しげ」「満足げ」「自慢げ」「確信ありげ」와 같이 형용동사를 형성하는 접사 <げ>를 고찰 대상으로 삼아 그 의미용법을 검토하고 <げ>유형 형용동사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怪しい:怪しげ」와 같이 공통 어기에서 분기한 형용사와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의미적 관계와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 실태, 그리고 고전어에서 다용되었던 <げ> 유형의 형용동사가 현대어에서 수적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태의 조동사 <そう>의 출현과 관련지어 고찰했다.

동일의 어기에서 분기한 형용사와 <げ> 유형의 형용동사에서, 형용사가 연체 수식어로 쓰일 경우에는, 사실에 기초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げ> 유형 형용동사가 연체수식어로 쓰일 경우에는, 주로 자신의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단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제 3자 또는 다른 대상의 감정을 추측하여 표출한다.

한편 6종의 일본어 사전에서 제시된 <げ>에 관한 기술에 기초하여 <げ>의 의미용법을 살펴본 결과,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げ>는 주로 <様子(상태, 모양)>와 <感じ(느낌)>에 상당하는 의미를 실현하고 있고, 그 외에도 <雰囲氣(분위기)> <気配(낌새)> 등의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げ>는 다양한 형식에 접속하고 있고, 또한 선행 형식에 따라 그 의미가 다기에 걸쳐 있다. 일반적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의 어간에 <げ>가 접속하는 경향을, 화자의 상태나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형용동사에 <げ>가 접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げ> 유형의 형용동사는 고유어 계열보다 한어 계열에서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げ>는 소수이지만 사람의 정서에 관여하는 명사에도 접속되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며, <명사(が)+ありげ>와 같이 동사에서 파생된 <げ> 유형의 형용동사도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이지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げ> 유형의 형용동사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源氏物語』에서는 다용되어 224개 어휘가 쓰이고 있고, 《夏目漱石》의 작품에서는 31개가, 《天声人語(2008年)》에서는 15개가 각각 쓰이고 있다. 『源氏物語』에서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았던 <げ> 유형의 형용동사가 현대어 자료인 《夏目漱石》의 작품과 《天声人語(2008年)》에서 그 사용 어례와 출현 빈도가 감소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げ> 유형의 형용동사를 대신할 새로운 어휘의 출현도 가능성으로 상정되지만 그보다는 <げ>를 대신할 새로운 문법형식인 양태의 <そう>의 등장을 주된 요인으로 간주된다. 『源氏物語』에서 사용된 <げ> 유형의 형용동사 대부분이 현대어 번역에서 <そう>로 대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夏目漱石》의 작품과 《

天声人語(2008年)》에서 사용된 〈げ〉 또한 〈様子(상태, 모양)〉와 〈気配(낌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げ〉는 현대일본어의 추측표현인 양태의 〈そう〉에 상당한다고 해석된다. 특히 《夏目漱石》의 작품에서는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사용된 〈げ〉는 양태의 〈そう〉와의 치환이 가능하며, 의미적으로 거의 동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 지적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げ〉유형의 형용동사와 〈형용사+そうだ〉의 상관관계를 기술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시대별 언어자료에서의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소장(消長)을 살펴보면, 고전어에서 현대어로 이행하면서 구어체 형식의 문의 사용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 구어체 문장에 적합한 〈형용사+そうだ〉가 사용된 문의 사용빈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문어체적인 성격의 〈げ〉유형의 형용동사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해석된다.

참고문헌

- 權善和(2005) 『形容動詞化する接尾辞「的」について』 『日本学報』 64輯, 韓国日本学会, pp.1-15.
- _____ (2006) 『漢語の名詞と形容動詞語幹について - 意味概念と用法を中心として -』 『日本学報』 66輯, 韓国日本学会, pp.1-13.
- 李成圭(2003) 『일본어 어휘 I - 일본어 실용문법의 전개 II -』 불어문화, pp.151-182.
- _____ (2005) 『일본어 표현문법 서설 - 일본어 실용문법의 전개 V -』 불어문화, pp.111-142.
- 李成圭·權善和(2000) 『漢語動詞와 日本語教育 - 現行高等学校 日本語 教科書を 対象으로 하여 -』 『日本学報』 45輯, 韓国日本学会, pp.255-272.
- _____ · _____ (2003) 『日本語形容動詞の一問題』 『日本学報』 56輯 1卷, 韓国日本学会, pp.1-18.
- _____ · _____ (2006a) 『일본어 조동사 연구 III - 부정·의지·희망·양태·비유 -』 불어문화, pp.187-216.
- _____ · _____ (2006b) 『현대일본어 문법연구 I』 시간의물레, pp.277-334.
- 飯豊毅一(1973) 『形容詞・形容動詞の語幹・各活用形の用法』 『品詞別日本文法講座 第四卷 形容詞形容動詞』 明治書院, pp.163-206.
- 柏谷嘉弘(1973) 『形容動詞の成立と展開』 『品詞別日本文法講座 第四卷 形容詞形容動詞』

- 明治書院、pp.95-162。
- 北原保雄編(2010)『明鏡国語辞典 第二版』大修館書店。
- 金田一京介外4人編(1972)『新明解国語辞典』三省堂。
- 小島俊夫(1984)『形容動詞とは何か』『研究資料日本文法3 用言編(二) 形容詞形容動詞』明治書院、pp.145-187。
- 漆谷広樹(1988)『『形容動詞』語幹構成要素『ゲ』に関する一考察』『専修国文』42、専修大学国語国文学会、pp.186-187。
- 新村出編(2008)『広辞苑 第六版』岩波書店。
- 鈴木一彦(1973)『近代文法書および辞書の形容動詞一覧』『品詞別日本文法講座 第四巻 形容詞形容動詞』明治書院、pp.232-270。
- 蜂矢真郷(2003)『語幹を共通にする形容詞と形容動詞』『国語語彙史の研究語文』和泉書院、pp.207-224。
- 林四郎編(1984)『例解新国語辞典』三省堂。
- 林史典・靄岡昭夫編(1992)『15万例文・成句現代国語用例辞典』教育社。
- 藤松紀子(昭和54)『源氏物語における形容詞+接尾語ゲについて』『学習院大学国語国文学会誌』22、学習院大学、pp.49-58。
- 村田菜穂子(1999)『ゲナリ型形容動詞一造語力拡大の様相について一』『国語語彙史の研究』18集、和泉書院、pp.72-83。
- 望月郁子(1965)『形容動詞と形容詞の語形の変遷について』『日本文学誌要』13、法政大学、pp.52-63。

例文出典

- ・(1)(2)(3)(4)(5)(7)(8)(10)(11)(12a)(12b)(13a)(13b)(14a)(14b)(15a)(15b)『国語用例』=林史典・靄岡昭夫編『15万例文・成句現代国語用例辞典』教育社 1992・
- (6)『<http://www.asyura.com/08/senkyo48/msg/753.html>』・(9)『火星探険』=海野十三『火星探険』『サイエンス』1945~1946、『火星探険』(『海野十三全集第11巻 四次元漂流』)三一書房 1988 [青空文庫]・(16)『06末摘花』=紫式部『06末摘花』『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16a)『06末摘花』現代語訳=渋谷栄一『06末摘花現代語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16b)『06末摘花』与謝野晶子訳=与謝野晶子『06末摘花』与謝野晶子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17)『05若紫』=紫式部『05若紫』『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17a)『05若紫』現代語訳=渋谷栄一『05若紫現代語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17b)『05若紫』与謝野晶子訳=与謝野晶子

『05若紫』与謝野晶子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18)『04夕顔』=紫式部『04夕顔』『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18a)『04夕顔』現代語訳=渋谷栄一『04夕顔』現代語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18b)『04夕顔』与謝野晶子訳=与謝野晶子『04夕顔』与謝野晶子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19)『04夕顔』=紫式部『04夕顔』『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19a)『04夕顔』現代語訳=渋谷栄一『04夕顔』現代語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19b)『04夕顔』与謝野晶子訳=与謝野晶子『04夕顔』与謝野晶子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20)『15蓬生』=紫式部『15蓬生』『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20a)『15蓬生』現代語訳=渋谷栄一『15蓬生』現代語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20b)『15蓬生』与謝野晶子訳=与謝野晶子『15蓬生』与謝野晶子訳『源氏物語』, 源氏物語の世界 再編集版 <http://www.genji-monogatari.net/> · (21)(25)(36b)(38b)(39b)(41b)(44b)『行人』=夏目漱石『行人』『朝日新聞』1912年12月~1913年11月, 『行人』(『筑摩全集類聚版夏目漱石全集』) 筑摩書房 1971 [青空文庫] · (22)(43a)『それから』=夏目漱石『それから』『朝日新聞』1909, 『それから』(『漱石全集 第六卷』) 岩波書店 1994 [青空文庫] · (23)『彼岸過迄』=夏目漱石『彼岸過迄』『朝日新聞』1912, 『彼岸過迄』(『筑摩全集類聚版夏目漱石全集』) 筑摩書房 1971 [青空文庫] · (24)『三四郎』=夏目漱石『三四郎』『朝日新聞』1908, 『三四郎』角川文庫クラシックス 角川書店 1951 [青空文庫] · (26)(36a)(41a)『草枕』=夏目漱石『草枕』『新小説』1906, 『草枕』(『筑摩全集類聚版夏目漱石全集』) 筑摩書房 1971 [青空文庫] · (27)(43b)『明暗』=夏目漱石『明暗』『朝日新聞』1916, 『明暗』(『筑摩全集類聚版夏目漱石全集』) 筑摩書房 1971 [青空文庫] · (37a)(37b)(39a)(40a)『吾輩は猫である』=夏目漱石『吾輩は猫である』『ホトトギス』1905, 『吾輩は猫である』(『筑摩全集類聚版夏目漱石全集』) 筑摩書房 1971 [青空文庫] · (38a)『虞美人草』=夏目漱石『虞美人草』『朝日新聞』1907, 『虞美人草』(『筑摩全集類聚版夏目漱石全集』) 筑摩書房 1971 [青空文庫] · (40b)『道草』=夏目漱石『道草』『朝日新聞』1915, 『道草』岩波文庫 岩波書店 1942 [青空文庫] · (42a)『坊っちゃん』=夏目漱石『坊っちゃん』『ホトトギス』1906, 『坊っちゃん』(『夏目漱石全集』) ちくま文庫 筑摩書房 1987 [青空文庫] · (42b)(44a)『門』=夏目漱石『門』『朝日新聞』1910, 『門』(『筑摩全集類聚版夏目漱石全集』) 筑摩書房 1971 [青空文庫] · (28)『天声』08.03.04=『天声人語』『朝日新聞社』2008.03.04 · (29)『天声』08.10.10=『天声人語』『朝日新聞社』2008.10.10 · 『天声』08.05.15=『天声人

語, 『朝日新聞社』 2008.05.15・(31)『天声』08.10.27=『天声人語』 『朝日新聞社』
2008.10.27・(32)『天声』08.04.17=『天声人語』 『朝日新聞社』 2008.04.17・(33)『天声』
08.04.05=『天声人語』 『朝日新聞社』 2008.04.05・(34)『天声』08.08.16=『天声人語』
『朝日新聞社』 2008.08.16・(35)『天声』08.12.21=『天声人語』 『朝日新聞社』 2008.12.
21。

- ❖ 투고일 : 2012.06.30
- ❖ 심사일 : 2012.07.24
- ❖ 심사완료일 : 2012.08.06